



2025년도 정기인사 승진자 명찰·명함 수여식 개최

5월 2일 오전 선보공업 본사 교육장에서 2025년도 정기인사 승진자 대상 명찰·명함 수여식이 개최됐다.

수여식에는 다대1·2공장, 선보유니텍 임원과 승진자들이 참석해 그간의 노고와 헌신에 따른 결실을 축하했다. 최금식 선보Family 회장은 명찰과 안전모, 임원 배지를 수여하고, 박두선 선보Family 부회장은 새 명함을 건넸다. 김청욱·서재욱·최동규

선보공업 부사장은 행운의 2달러를 전달했다. 명찰·명함 수여에 이어 최금식 회장과 박두선 부회장의 격려사, 선보슬로건 제창, 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식은 마무리됐다. 선보유니텍 대불공장과 선보하이텍, 선보피스 소속 승진자는 각 공장에서 자체 수여식을 진행했다. 5월 1일 자 승진자는 24명이다.



▲수석(6)=노진철·이창면·박귀남·김갑진·최우호·정현우



▲책임(8)=정원진·최치욱·김은식·김천기·성광준·천병철·박영근·박민욱



▲선임(8)=강지혜·진호련·유재훈·강동호·백승인·오예린·정세롬·오진혁



▲팀장=박웅기



▲기원=김기주

수상

기술연구소 정제헌 상무, 제1회 대한민국 해양지도자 대상 수상



선보 기술연구소 정제헌 상무가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국제신문이 제정한 '제1회 대한민국 해양지도자 대상'의 수상 영광을 안았다.

정제헌 상무는 5월 28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25 해양주간 - OCEAN WEEK'의 일환으로 개최된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해양 강국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패와 상금 300만 원을 받은 정제헌 상무는 선보 Family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리며 기쁨을 나눴다. 이 밖에도 정제헌 상무는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2022년 기계·로봇·항공산업 발전유공 포상'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선보의 기술 발전과 위상 강화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대한민국 해양지도자 대상'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대한민국 해양력 강화에 이바지한 인물들을 조명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제정됐다. 한국해양대와 국제신문은 이를 통해 해양 산업과 연구, 정책, 교육 전반에 걸쳐 공헌한 인물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수상

선보유니텍 김상진 책임, 영암군수 표창 수상

선보유니텍 김상진 책임이 5월 1일 영암군수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상진 책임은 헌신적인 봉사 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군정 발전과 지역 화합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한 노고가 높이 평가됐다. 영암군은 정례조회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군민과 공직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김상진 책임은 영암군에 감사를 전하며 선보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 사회공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회사 소식

2025년 1분기 사업실적 보고회 개최



선보는 4월 28일 본사 교육장에서 2025년 1분기 사업실적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에는 팀장 이상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가 제창을 시작으로 오후 1시부터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조선을 넘어 에너지로 전 세계를 향해하는 NO.1 친환경 에너지 기업'을 비전으로 '선샤인 프로젝트(Sunshine project)' 추진이 공식화되며, 1분기 사업실적 보고회도 이에 기반해 진행됐다. 발표는 HSE팀의 환경·안전·보건 관련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영업·다대/구평공장·생산설계·플랜트설계·품질경영·자재조달·경영지원·경영기획·전산팀·시운전팀·연구기술·에너지솔루션·선보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법인별 대표이사 강평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선샤인 프로젝트가 새로운 중점 과제로 설정된 만큼, 선보Family는 적극적으로 매출 달성과 주식시장 상장, 신사업 확장에 매진하고 있다.

회사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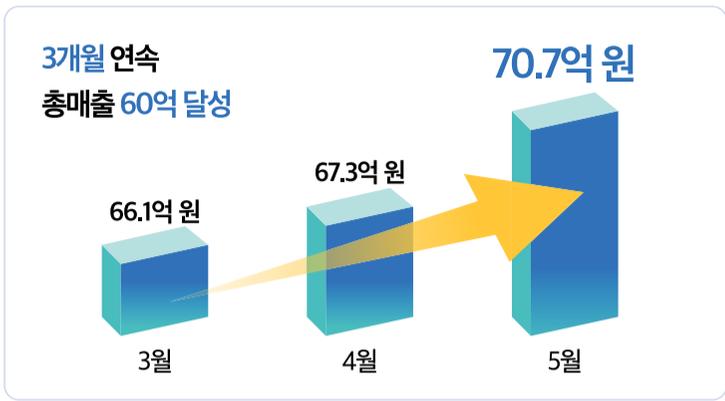
선보유니텍 구평공장, 3개월 총매출 204억 원 돌파

선보유니텍 구평공장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총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

구체적으로는 3월 66.1억 원, 4월 67.3억 원, 5월 70.7억 원을 달성하며 창립 이래 처음으로 3개월 연속 60억 원을 넘겼다. 월 매출이 70억 원을 초과한 것도 처음이다. 이러한 성과의 원동력은 '소통과 화합', 그리고 '신뢰와 열정'이었다. 선보유니텍의 현장에는 긍정의 힘이 가득했고, 부서 간 벽을 허물어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전진했다.

선보유니텍 이동준 상무는 "2025년 통합법인 SB 선보 출범을 앞두고 선보유니텍 법인으로서의 마지막 시기에 김창욱 대표이사에게 전 임직원이 함께 이뤄낸 큰 선물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선보유니텍이 밝힌 성장 비결은 다음과 같다.



1 리드타임 단축

기존 30일이 소요되던 공정을 20일로 단축해 완성한 제품들이 많았다.



2 철저한 로드 분석

3개월 치 로드(LOAD)를 철저히 분석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관리가 이루어졌다.



3 현장과의 소통 관리

아침에 발생한 문제는 반드시 당일 퇴근 전까지 회신하는 것이 구평공장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4 ERP 유닛 종합현황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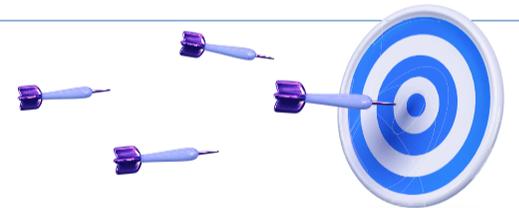
과거 엑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던 일정 관리를 ERP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타 부서와의 일정 관리가 일원화되었고, 특히 자재 조달 실패율을 0%로 만들 수 있었다.



선보유니텍 임직원 모두가 만들어낸 이 뜻깊은 성과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SB 선보의 밝은 미래를 예고합니다.

선보Family

'다트 공 던지기' 한마음대회 개최



선포터즈와 주니어보드가 주최하는 선보Family 대표 소통 행사인 한마음대회가 4월 30일 선보공업 본사 교육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 종목으로는 다트 공 던지기가 진행됐다. 총 11팀이 참가한 가운데, 팀당 2명의 선수가 다트 공 3개를 던져 중앙에 맞추는 식이었다. 팀별 3차 시도 끝에 합산 점수가 570점으로 가장 높은 계장반(장형구 기원·박건우 사원)이 우승을 차지했다. 계장반은 지난 3월 한마음대회 공기놀이 종목에 이어 2연승을 거두며 우수한 경기 실력을 입증했다. 특히 장형구 기원은 3차 시도에서 모두 100점 만점을 얻으며 참가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2등은 520점을 얻은 설계2팀(김재원·장봉수 선임)이 차지했다. 1·2등 팀에는 각각 인당 5만 원, 3만 원씩의 개별 상금이 지급됐다.



선보Family

‘봄날 추억 나눠요’ 선보Family 나들이 사진전

4월 11일~15일 베트남 푸꾸옥 선셋타운

1

강순호 선임 자재조달팀

처음으로 3대 가족이 베트남 푸꾸옥으로 해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덥고 빠듯한 일정으로 힘들었지만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3대가 함께하는 해외여행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1월 베트남 푸꾸옥

2

이현우 책임 설계2팀

어머니 칠순 기념 가족 여행으로 푸꾸옥을 다녀왔습니다. 44년 인생 첫 해외여행이 가족 여행이라 더 의미 있었어요. 특히 아픈 사람 없이 맛있는 것 많이 먹고, 새로운 환경과 다양한 볼거리를 경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가족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푸꾸옥 정말 추천합니다!

5월 23일 일본 삿포로

2

장형구 기원 조립반

가족과 함께 일본 삿포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깨끗한 도시와 맛있는 음식,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짧은 여행이지만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4월 6일 김해

3

최치욱 책임 설계2팀

가족 계획 완료하고 처음 맞는 벚꽃입니다. 사진 피해 도망가는 아들 잡고, 코 흘리는 딸 데리고 겨우겨우 한 장 남긴 기록입니다 ㅎㅎ

4월 13일 후사랑 밀크

3

한승진 책임 조선생산팀

와이프 친구네(선우네)랑 휴일 공동 육아를 했습니다. 후사랑 밀크에서 잼초주기 송아지유유주기 짚짜기 피자 만들기, 미꾸라지 잡기 등 여러 체험을 하며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4월 6일 합천군 봉산면

3

이경진 책임 설계3팀

처가 삼남매 가족 나들이로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도 다 같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4월 6일 부산 민락수변공원

김천기 책임 품질경영2팀

모처럼 부모님과 가진 번개모임~ 날씨도 기분도 상쾌한 하루라 모두가 웃고 떠들었던 좋은 날이었습니다.

4월 5일 부산 영도 해수천

박선우 사원 설계5팀

여자친구한테 잘못해서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영도 해수천에 꽃을 보러 가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 가 보는 곳인데 정말 잘 왔단 생각이 들었고, 여자친구는 물론이고 풀 것 없는 제 기분도 덩달아 좋아졌습니다. 일본인 줄 착각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어서, 꽃의 힘은 위대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5월 4일 거제 매미성

구진호 책임 설계6팀

어버이날을 맞이해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날씨까지 좋아 모두가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4월 부산 삼락생태공원

서상혁 사원 영업1팀

벌써 7번째 여자친구랑 벚꽃 나들이를 다니고 있습니다. 매년 벚꽃이 피면 꼭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이 쌓여 저희에게 특별한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5월 25일 마산 로봇랜드

유병창 책임 설계1팀

큰딸 생일 기념으로 큰딸과 친구들, 작은 딸과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기구 타고 행사도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들과 회전 그네를 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4월 12일~14일 일본 후쿠오카

강지혜 선임 설계8팀

후쿠오카에서 봄나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벚꽃이 예쁘게 피어 있어 걷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날씨도 포근해서 산책하기 딱 좋았고, 맛있는 라멘이랑 디저트도 실컷 먹고 왔어요. 짧은 여행이었지만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5월 24일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김진아 사원 전개장기본/상세설계팀

오후에 비 그친대서 부랴부랴 갔는데 끝까지 비가 그치지 않아 슬퍼지만... 수백만 송이의 장미들로 눈 호강한 행복 한 나들이였습니다!

5월 16일 부산 사직구장

최성문 선임 설계5팀

설계5팀은 봄나들이로 야구 관람을 계획하고 사직구장을 찾았습니다. 우천으로 아쉽게 경기는 취소됐지만, 덕분에 오히려 더 긴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단합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웃음과 정이 넘치는 자리였고, 평소 나누지 못했던 다양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4월 12일 부산 삼락생태공원

김시윤 선임 전개장기본/상세설계팀

봄 소풍 가고 꽃 구경도 할 겸 방문했는데, 아이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은 최근 아기가 자주 짓는 귀여운 표정을 온 가족이 함께 따라하며 찍은 소중한 사진입니다.

5월 11일 부산 해운대 웨딩홀

이준희 선임 기획팀

친척 결혼식에 참석해 애들 없이 와이프랑 한 컷 찍었습니다.

5월 3일 안도 해양치유센터

강보철 책임 선보하이텍 설계팀

테니스를 사랑하는 73년생 친구들과 매년 1박 2일 여행을 갑니다. 이번에는 전남 완도로 고고씽~ 해양치유센터 내에 있는 머드팩 체험관에서 단체로 찰칵!

4월 20일 경주 불국사

김민진 선임 EM팀

신혼 때 왕벚꽃을 보러 갔던 기억이 나 아이를 데리고 처음으로 경주 불국사에 갔습니다. 핑크빛으로 물든 공원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솜사탕도 먹었습니다. 즐거운 기억이었는지 아이가 아직도 애길 하네요. 내년에도 같은 시기에 가 볼 예정입니다 ^^!

4월 6일 부산 대저생태공원

고중현 책임 설계3팀

벚꽃 나들이~ 아무리 바빠더라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필수입니다!

5월 30일 부산 대대로

손범석 선임연구원 기술연구소2팀

팀원들과 함께한 즐거운 나들이를 사진으로 남길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좋은 추억이 됐고, 함께해서 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5월 25일 북면 수변생태공원

박상민 선임 선보피스 생산관리팀

러닝모임(TRT, Turtle Running Team)에서 런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매주 목, 일요일에 함께 창원보조경기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이날은 금계국역의 색노란 천국길을 달려서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과 북면을 다녀왔습니다. 가족들과 산책하기도 좋아요.

5월 6일 부산 삼광사

강신우 사원 전개장기본/상세설계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가족과 함께 연등 축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형형색색의 연등이 머리 위를 가득 수놓아 환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소중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아이도 밝은 표정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가족 간 유대감을 더 깊게 다지는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5월 1일~2일 포항 스카이워크

전성민 선임 기계설계팀

SNS에서 스카이워크를 보고 한번 가 보고 싶어 갔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세게 불어 흔들 흔들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맛있는 것 많이 먹고 애들도 좋아해서 기분 좋게 다녀왔습니다.

선보Family

가족과 함께 '왁자지껄 행복한 쿠키 클래스'



선보는 5월 17일 오전 본사 교육장에서 임직원 가족을 위한 쿠키 클래스 행사를 열고 선보Family에게 추억의 시간을 선물했다.

이날 오전 본사에 방문한 임직원 가족들은 현장과 홍보관, 설계실 등을 둘러본 후 다과를 나누며 편안한 소통 시간을 가졌다. 이후 교육장으로 이동해 약 2시간 동안 쿠키 클래스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에는 24개 가정, 63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강사의 지도하에 자녀들과 함께 휘핑과 샌딩, 아이싱, 데코까지 다양한 활동을 즐겼다. 케이크는 산리오 인기 캐릭터인 '시나모롤' 모양으로 완성되며 자녀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



회사 소식

선보유니텍, 'HJ중공업 프로젝트' 선미 구역 Tank Top Unit 첫 납품

선보유니텍이 HJ중공업과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선미 및 선수 구역으로 구성된 Tank Top Unit 공급 사업으로, 선보는 그 첫 단계인 선미 구역 유닛을 5월 20일 납품 완료하며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디뎠다.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 HJ중공업 프로젝트
- 납품 사항: 선미 구역 Tank Top Unit
- 납품 예정: 선수 구역 Tank Top Unit

Tank Top Unit이란?

'Tank Top Unit(탱크 톱 유닛)'은 선박 내부 화물 탱크의 최상단에 위치한 구조 보강 블록으로, 고압 액체 저장을 위한 지지 구조물이다. 선체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정적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며, 고정밀 설계와 제작 역량이 요구되는 핵심 부위다.

이번 프로젝트는 당사의 Tank Top 제작 역량을 시장에서 입증하는 중요한 기회였다. 전 공정을 사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며, 고객사의 품질 기대에 부응했다.

특히, 선보유니텍 생산팀은 신속함과 유연함을 발휘해 납기 준수에 차질 없이 대응했다. 발 빠른 현장 대응 능력과 품질 관리 역량은 선보유니텍의 큰 자산이다. "문제 발생 시 빠른 판단과 대응으로 안정적인 납품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 팀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장효준

책임/구평생산관리팀)

선보유니텍은 향후 진행될 선수 구역 Tank Top Unit 납품을 앞두고,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납품을 위해 전 팀이 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성공을 통해 신규 고객과의 장기 파트너십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함께한 사람들

생산관리



표종원 책임

한진중공업과 첫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존 고객과는 시스템이 다른 부분이 많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차츰 알아가며 진행하다 보니 더욱 친숙해지고 소통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납품된 제품을 본 고객이 만족하는 모습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효준 책임

신규 프로젝트지만 설계, 조달에서 사전 준비를 잘해주신 덕에 무사히 첫 블록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또 옥외 작업장에서 고생 많이 하신 대진유니트 이상진 팀장님 외 현장 분들 덕에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선수 쪽 유닛도 잘 준비해서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연주 선임

"처음"이란 단어가 주는 설렘처럼,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도 설렘과 기대 그 자체였습니다. 조선소 전산 사용에 한계가 있었지만,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각 파트 동료들이 모두 협업해 이뤄낸 성과라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설계



윤치호 책임

설계5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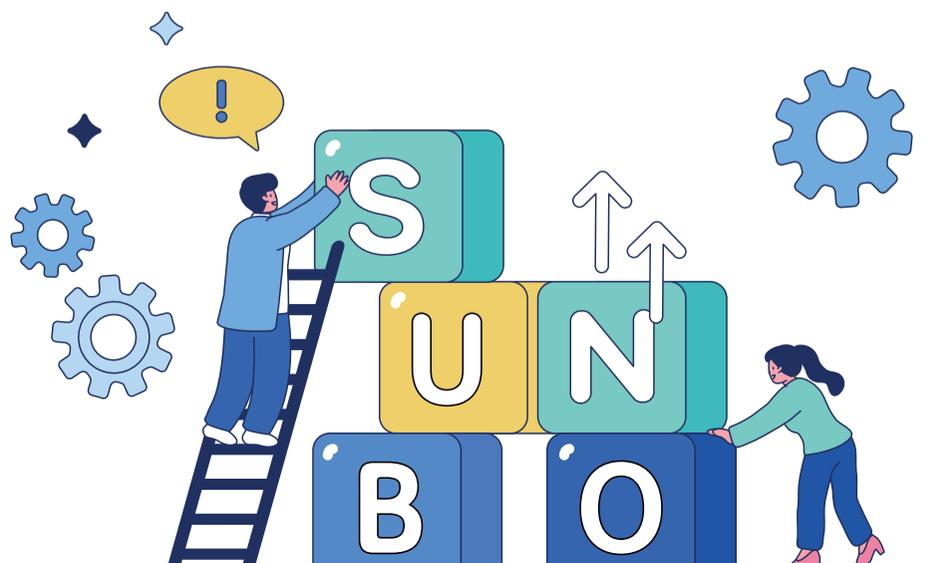
부서 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유닛 납품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호선 담당자 및 관리자, 현장 직·반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철 책임

설계5팀

신규 프로젝트의 Tank Top Unit이 무사히 납품돼 기쁘고, 생산·자재조달·품질·영업·기획·설계 모든 담당자 분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선수 구역도 함께 노력하여 완벽한 유닛이 납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품질



김규철 선임

품질경영3팀

신규 고객의 첫 프로젝트를 맡아 약간의 부담감도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납품해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차기 납품될 유닛에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재지원



박춘복 기원

자재지원반

도급, 사급 자재들이 적기에 입고될 수 있도록 애쓰는 조달, 생산관리 부서 동료들의 도움으로 무사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N0286 프로젝트의 남은 유닛도 현장에서 문제없이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박관호 팀장

구평생산팀

성공적으로 납품해 뿌듯합니다. 이런 팀워크라면 후속 호선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재 조달



강순호 선임

자재조달팀

이동준 상무님 이하 관리자, 작업자 동료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첫 걸음을 뗐지만 차후 신규 프로젝트도 문제없이 납품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자재 조달에서도 자재 수급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현 선임

자재조달팀

이번 유닛 납품 프로젝트에 구매 담당으로 참여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각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한 자재를 적시에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매 업무로 프로젝트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지 선임

자재조달팀

많은 분의 노력이 합쳐져 한진 Tank Top Unit을 성공적으로 납품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돼 뿌듯하고, 참여할 수 있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업



서상혁 사원

영업팀

선보유니텍 탱크 톱 유닛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 뜻깊었습니다. 특히 생산관리 및 설계 부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반영하고, 납기 내에 좋은 품질로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결과인 만큼 더욱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현장 생산



이상진 팀장

대진유니트

선보에서는 신규 호선이나 HJ중공업 작업 경험이 있어 큰 문제 없이 진행됐습니다. 생산 관련 이슈 발생 시 설계-생산-품질 각 부문에서 신속하게 피드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착수 예정인 선수 구역 유닛도 잘 부탁드리며, 안전하게, 즐겁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사회 공헌

선보봉사단, 물운대 사회복지관 방문 봉사

선보봉사단이 주말인 5월 24일 오전 물운대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선보봉사단은 다대5지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위해 방역 봉사를 진행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바퀴벌레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방역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며 복지관과 선보봉사단에 감사를 표했다.

복지관은 "이번 방역 봉사활동은 바퀴벌레 등 해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주민분들께 큰 도움이 됐다"며 "비가 내리고 강풍주의보까지 발효된 좋지 않은 날씨임에도 흔들림 없이 함께해주신 선보공업 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선보봉사단은 앞서 4월 8일 동 복지관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주민들과 온정을 나누고 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교육

선보공업·유니텍, 직업윤리 아침특강 개최

선보공업과 선보유니텍이 5월 14일과 21일 오전 교육장과 사내 식당에서 직업윤리·윤리경영과 관련한 아침특강을 실시했다.

강연에서는 ▲윤리경영의 중요성 ▲윤리경영과 ESG경영의 개념 ▲선보Family의 윤리경영 철학 ▲개인 실천 공약 등이 다뤄졌다. 선보는 지속가능한 경영의 일환으로 'SB 윤리경영' 제도를 제정해 선보Family가 공정하고 청렴한 기업문화를 실천하도록 이끌고 있다.

이번 특강으로 선보Family는 윤리적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하고,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윤리경영의 기준과 실천 방법을 공유할 수 있었다.



교육

'함께 만드는 선보다움' 호남사업장 팀장 워크숍 개최



선보유니텍 대불공장·선보하이텍 팀장 11명이 참석한 '새롭게 만드는 선보웨이! 선보Family 팀장 워크숍'이 4월 30일 대불공장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4월 14일 부산에서 개최된 팀장 워크숍과 마찬가지로 SUNSHINE 2027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조직의 정체성과 일하는 방식을 현장의 시각으로 직접 정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남사업장 팀장 및 책임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기획한 이세영 선보엔젤파트너스 이사가 진행을 맡았다. 선보의 미래 비전과 핵심 가치, 인재상, 실행 전략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구체적 질문으로는 ▲2035년 선보의 모습 상상하기 ▲선보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의 자질 ▲통합법인 사명에 관한 의견 개진 등이 제시됐다.

부산사업장과 호남사업장 워크숍을 토대로 정리된 '새로운 선보다움'은 경영진 의사결정을 거쳐 구성원들에게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선보로그

기술이 선보의 미래다
- 박다연 사원

기술연구소는 신사업 기획과 선박 엔지니어링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시스템 도면 작성·수정, 규정 검토, 장비 견적 산출 등 기술 설계와 협업 업무를 담당합니다. 기술연구소1팀 소속 박다연 사원의 일과를 소개합니다.

오전일과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 거주 중인 하단에서 선보까지 자전거를 타고 옵니다! 낙동강변을 따라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바다 냄새가 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 바다 내음과 함께 코끝이 찡해지면서 잠이 확 달아나고, 그 순간 펼쳐지는 경관을 보면 '오늘도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요. 자전거 출퇴근은 운동도 되고 교통비도 절약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전날 메모장에 정리해 놓았던 프로젝트별 공부 내용을 읽어보며, 무엇을 했는지 되새기고 암기하려고 합니다. 예전엔 'Notion'이라는 프로그램을 썼는데, 회사에서는 보안 문제로 메모장에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메모장에 정리하니 여러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선보Family 여러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가요?
메신저라도 꿀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0



현재 도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연구소1팀은 신사업을 기획 중이며, 저는 CHS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도면을 수정하고 그에 따른 operation mode가 맞는지 검토하고 있어요. 일하면서 최근 선급 규정을 찾아보는데 영어로 돼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꼼꼼히 읽기 어려워 제 영어 실력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나 배운 내용은 메모장에 따로 정리해두고 있어요.

회사에서 제일 신나는 시간, 점심시간입니다!

학교 다닐 땐 자취를 해서 식사를 제대로 못 챙겼는데, 회사에 와서는 매일 새로운 메뉴로 식사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 다닌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4kg이나 쪼녔네요^^;; 열심히 운동해야겠어요! 당분간은 여름 대비 다이어트 들어갑니다!



오후일과

벌써 오후 2시네요. 남은 시간도 다시 열심히 집중해봅니다! 현재 배우고 있는 프로젝트는 크게 'LNG Cargo Handling System'과 '메탄올 레디 선박 엔지니어링'입니다. CHS는 아직 비당 단계에 있고, 저는 카고 핸들링에 들어가는 다양한 장비들의 견적을 내고, 그 금액을 타 부서와 함께 검토하며 협업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장비 타입이나 업체 관련 내용, 기본적인 문서 작성 등을 경험하며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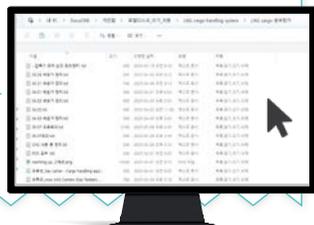
가장 행복한 시간, 퇴근 시간입니다!

하지만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좀 더 하고 가는 편이에요. 저는 아침보다는 업무가 끝난 후 집중이 더 잘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ㅎㅎ 그리고 퇴근할 때는, 매일은 아니지만 되도록 책상을 정리하고 갑니다. 그래야 다음 날 출근했을 때 기분이 좋거든요!

17:00



8:00



사회 공헌 가정의 달 기념 선보 스페셜 당근마켓 개장

선보Family의 대표 나눔 활동인 당근마켓 '아름다운 기부'가 가정의 달을 맞아 스페셜 캠페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스페셜 캠페인은 최금식 선보Family 회장 명의로 완구 및 장난감, 가정용 생필품을 일괄 구매 후 임직원들이 경매에 참여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4월 29일 오후까지 온라인 댓글 경매가 진행됐고, 연휴 전인 4월 30일 물품이 일괄 전달됐다. 올해도 장난감과 놀이 세트, 도서, 위생용품, 인테리어 소품 등 다양한 신상품이 어린이날 선물로 마련돼 선보Family의 호응을 얻었다.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낙찰된 물품들은 각 가정에 전달돼 만족도를 높였고 수익금은 기부금으로 전환되며 일석이조 나눔 효과를 냈다.



안전 선보유니텍, 부·울·경 선박블록 제조업 광역간담회 참석

선보유니텍이 4월 29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하 부산노동청)에서 열린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부·울·경 선박블록 제조업 광역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선보유니텍 구평공장을 대표해 임영삼 상무(H.S.E담당)와 배상준 선임(HSE팀)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5년간 조선업에서 발생한 62명의 사망사고 중 43.5%가 4~6월에 집중된 점을 감안, 부산·울산·경남의 선박블록 제작업체들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관련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부산노동청은 4~6월까지의 기간을 '블록사업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사망사고 집중 안전관리 시기'로 규정, 제작업체 25개사 CSO(최고안전책임자)를 대상으로 조선업 사고 동향 및 재해예방대책·주요 조선사 안전보건활동 사례 발표, 3대 안전수칙 준수 공동 결의를 실시했다.

H.S.E팀은 "구평공장도 타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추락, 협착, 화재·폭발 등 고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안전보호구(안전모·보안경·안전벨트·안전화 등) 상시 착용 및 안전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선보Family 모두 '안전에는 예외가 없다'는 인식으로 무사고 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합심해줄길 바란다"고 당부를 전했다.



Special Interview

‘선재 업고 튀어’ 배우 송지호가 바라본 선보



지난해 인기리에 막을 내린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를 보셨나요? 주인공 임술의 오빠 ‘임금’ 역으로 유쾌한 연기를 선보이며 큰 사랑을 받은 배우 송지호가 선보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한다고 합니다. 배우 송지호가 바라본 선보는 어떤 모습인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Q 반갑습니다! 최근 <닥터 차정숙>, <선재 업고 튀어> 등 다양한 작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캐릭터는 무엇인가요?

A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분이 좋아해 주셨던 <선재 업고 튀어>의 ‘임금’ 역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시청자들이 사랑을 많이 주셔서 그런지 여운도 오래 가고 더 애착이 생기더라고요.

Q 매 작품에서 새로운 역할을 연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늘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마음가짐이 궁금합니다.

A 사실 <선재 업고 튀어>의 ‘임금’ 역할은 처음엔 조금 어려웠어요. 극 중 캐릭터가 굉장히 유쾌하고 개성이 강한데, 제 실제 성격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때를 대비해 평소 일상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도 ‘저 사람은 저렇게 걷고 말하는구나’ 하면서 저만의 캐릭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죠.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 새로운 캐릭터를 맡을 때 좀 더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Q 선보에서는 그것을 ‘철저한 사전 준비’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촬영 중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하다 보니, 스스로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땐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A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느끼는 희열이 제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연기하기 직전에는 늘 긴장하고 두렵죠. ‘내가 이 역할을 정말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고요. 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 연기를 해냈을 때 쾌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 힘들어도 계속 도전하고 극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Q 앞으로 어떤 배우가 되고 싶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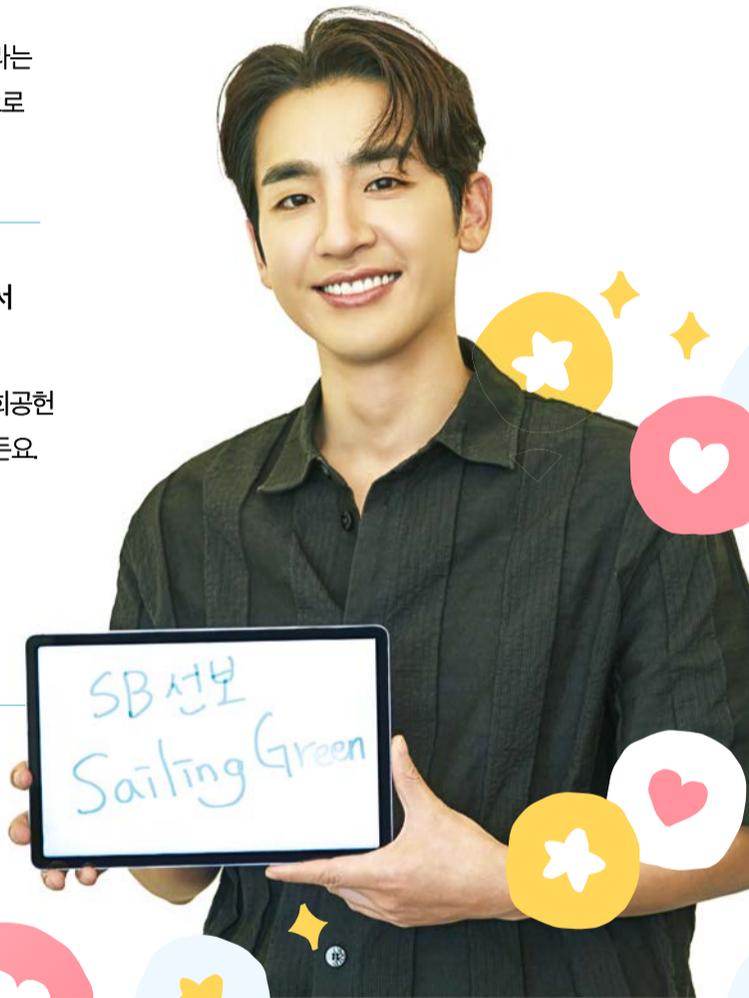
A ‘눈빛 하나만으로 모든 걸 말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작품이 있는데, 안톤 시거 역할을 맡은 하비에르 바르뎀이 러닝타임 내내 거의 대사 없이 눈빛만으로 엄청난 몰입감을 끌어내거든요. 저도 그런 깊이 있는 눈빛 연기를 하고 싶습니다.

Q 현재 소속사인 인연엔터테인먼트가 선보엔젤파트너스를 포함한 선보패밀리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선보와 자주 접하셨을 텐데요. 평소 선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A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보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요. 특히 최금식 회장님과 선보의 사회공헌 활동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분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오랜 시간 꾸준히 인재 양성, 장학금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들을 이어가시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고 느꼈습니다. 임직원분들께서도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걸 보며 ‘선보의 핵심 가치가 바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 봉사에 관심이 많은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웃음).

Q 선보가 법인 통합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보 가족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A 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멋지게 도약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늘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선보, 파이팅입니다!



안전 | 영남 사업장 소방 훈련 실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선보공업 다대1·2공장과 선보유니텍 구평공장, 선보피스에서 소방 훈련이 실시됐다.

이날 참석한 임직원들은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소화기 및 소방 호스 사용과 심폐소생술 시행, 비상 대피 등을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화재

경고음이 울린 후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비상 집결지로 대피하고, 대피 후에는 부서별 인원수를 확인한 후 소방관리자에게 현황을 보고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건조한 봄철이 지나고 기온과 습도가 오르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사업장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상시 점검 및 위험 요소 제거가 주요 안전 관리 업무로 꼽힌다.



EVENT 결과

'선보Family 나들이 사진 공모전' 이벤트 당첨자 발표

<SUNBO NEWS> 5월호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마련한 '선보Family 나들이 사진 공모전'에 23명의 선보Family가 참여해주셨습니다. 6월 2일(월)부터 6월 3일(화)까지 진행된 네이버 투표를 통해 총 6명에게 인기작의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1등** 100,000원 : 강순호 선임(자재조달팀)
- 2등** 50,000원 : 이현우 책임(설계2팀), 장형구 기원(조립1반)
- 3등** 30,000원 : 최치욱 책임(설계2팀), 한승진 책임(조선생산팀), 이경진 책임(설계3팀)

EVENT

태극기의 진짜 얼굴을 찾아라!

<SUNBO NEWS>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기념해 '태극기의 진짜 얼굴을 찾아라!'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아래 제시된 태극기 그림 중 알맞은 그림을 골라 표시해주세요.



1

2

3

4

5

6

부서: 성명:

▶ 장기근속자 포상 공고

성명 및 직책	소속	입사일
선보공업 / 안정빈 책임	전산팀	2000.06.03(25주년)

- 총괄 편집 이세영 이사(선보엔젤파트너스), 이수지 사원
- 총괄 감수 이준희 선임
- 총무, 행사, HSE 김영관 과장, 배상준 선임
- 제작 미디어룸 (Tel. 051. 623. 1906)

생일축하합니다 ※ 양력 변환일

선보공업 김태호(06.02) 원윤정(06.12) 고나원(06.16)
 박영준(06.03) 이수진(06.12) 김민지(06.20)
 정현교(06.06) 이현우(06.12) 신명환(06.22)
 이창용(06.09) 양수원(06.13) 박형준(06.23)
 김영관(06.10) 이병관(06.13) 김자상(06.30)

다대1공장 김동섭(06.01) 조 엘(06.07) 다 렌(06.25)
 안태주(06.01) 심상섭(06.11) 록 키(06.28)

다대2공장 제라드(06.02) 김은식(06.18) 이승현(06.20)

구평공장 시위넷(06.01) 조연주(06.20) 천병철(06.28)
 오진혁(06.03) 조 니(06.24)

에너지솔루션 장호신(06.13)

대불공장 김대희(06.03) 문수천(06.08)
 문화성(06.07) 이 훈(06.12)

영암공장 우 이(06.02) 라재스(06.09) 산자위(06.23)
 김경식(06.07) 송인환(06.16)

선보피스 윤한문(06.05)

입사기념일

선보공업 안정빈(06.03) 소상섭(06.13) 박귀남(06.18)
 장철민(06.09) 이수지(06.17)

다대1공장 김동섭(06.01) 안태주(06.19)
 김대관(06.09) 김종만(06.30)

다대2공장 박을순(06.01) 김광주(06.15)
 김종민(06.02) 노재근(06.15)

구평공장 김용자(06.01) 안석영(06.21) 셋 바(06.24)
 이유찬(06.03) 장세송(06.21) 진성은(06.26)
 전인성(06.20) 반투아(06.24)

에너지솔루션 박민욱(06.05) 백승인(06.05) 유시호(06.20)

대불공장 김성만(06.01) 박승은(06.01) 김민재(06.19)
 김태형(06.01) 프라카서(06.10) 이 훈(06.19)
 문수천(06.01) 김흥이(06.11) 김상윤(06.20)

영암공장 슈 팻(06.02) 김동현(06.17) 다리카(06.29)
 수산타(06.15) 선버핀(06.19) 티완카(06.29)

선보피스 남철기(06.01) 박재호(06.28)
 김용권(06.28) 차명석(06.28)